

이순신: 우리는 그를 진정한 영웅이라 부른다

‘난중일기를 읽고’

한 지윤

‘영웅’이란 단어는 어떤 사람에게 써야 맞는 말일까? 우리는 생활하면서 영웅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 같다. 일본에서 취객을 구하다 목숨을 잃은 우리나라 유학생인 故이수현을 기억하는가? 이수현은 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안타깝게도 전동차를 피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렇듯 요즘은 누군가가 위험하거나 힘든 상황에 빠져있을 때 주춤거리지 않고 앞장서서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영웅’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다. 하지만 자신의 몸을 바쳐 누군가를 구해 줄 진정한 영웅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조선이 아무런 힘이 없고 전쟁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았을 때 일본에게 공격을 받게 된 나라를 구한 사람은 바로 이순신 장군이다. 하지만 이런 이순신 장군은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각종 고문을 받고, 권력도 빼기고, 백의종군이 되어 전투에서 싸웠다. 이순신 장군은 얼마나 분하고 답답했을까?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인데도 오직 백성들만을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 싸우신 이순신 장군의 마음에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었다.

‘신에게는 아직 열 두 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작년 명량의 영화 포스터에서 본 이 말은 정말 인상 깊었다. 이순신 장군은 명량 대첩을 앞두고 수백 척의 배를 끌고 오는 상대편에 열 두 척의 배로 맞서는 싸움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해 고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덩달아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누가 봐도 우리나라가 훨씬 불리한 상황인데도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을 하면서 장수들을 격려해주었다. 명량 대첩 당시 우리나라는 판옥선이라는 배를 사용하여 전쟁에 나섰다. 판옥선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수 많은 백성들이 판옥선 아래에서 노를 저어야만 했다. 노를 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노를 젓는 사람들이 모두 한 몸한 마음으로 움직여야 한 방향으로 배가 나아가기 때문이다. ‘명량 대첩 당시 우리가 불리한 것을 알면서도 겁먹지 않고 이순신 장군을 믿고 존경하며 따르는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나라를 승리를 이끌 수 있었던 한 가지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살며시 찾아온 사춘기라는 병은 별일도 아닌 것에 대해 불쑥 화를 내거나 신경을 곤두서게 한다. 특히 엄마께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며 엄마와 나 사이에 벽을 쌓았다. 그런데 ‘난중일기’를 읽으면서 이순신 장군은 바쁜 와중에도 어머니 걱정을 많이 하셨다는 점이 나를 창피하게 만들었다. ‘어머니가 평안하시니 다행이다.’라는 구절이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효심이 깊은지를 알 수 있게 해주었다. 무엇보다 이순신 장군의 어머니께서 전쟁터에서는 나라의 치욕을 씻어야 한다고 가르쳤다고 한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음에 불구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

어머니가 원하셨던 나라의 평화를 위해 지혜와 정성을 쏟았다고 한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 우리 옆에 있으면 그 소중함을 망각하게 되는 것 같다. 이처럼 엄마와 함께 하루하루를 계속 지내다 보니 소중함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항상 ‘효도를 해야지’라는 생각만 했지 계속 미루다가 엄마께 무엇을 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다. 이순신 장군이 그의 어머니를 계속 생각하며 위한 것처럼 나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엄마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효도를 하는 딸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위에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마라’ 라는 말처럼 이순신 장군은 왕에게 온갖 의심과 오해를 받았고, 백의 중군도 두 번이나 했었다. 이처럼 나라는 이순신 장군을 영웅으로 대접한 적이 없었다. 이순신 장군은 나라와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싸웠지 영웅이 되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가족을 사랑하고, 부하들을 아끼고,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전쟁의 공포와 매서운 적의 공격을 이겨 낼 수 있었던 것 같다. 힘든 일이 닥쳐서 자신이 넘어졌을 때 용기 있게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넘어진 상태로 가만히 포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진정한 영웅’은 자신에게 어떤 시련이 닥칠 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끝까지 도와주는 이순신 장군과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싸움이 한창 급하다.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는 중 총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도 자신보다는 우리의 승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에 가슴이 찡했다. 오늘날 우리는 이순신 장군하면 학생들은 ‘멋진 장군’,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신 장군’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나도 마찬가지로 그저 ‘싸움을 잘하셨던 장군’으로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에 대해 더 알게 되고 그의 생각이나 일생이 담긴 ‘난중일기’를 읽고 나서 싸움을 잘하셨던 장군에서 우리나라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영웅으로 내 머릿속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아무런 힘이 없던 우리나라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과 다를 점이 없었다. 그런데 ‘이순신’이란 용감한 장군이 목숨을 바쳐 구해줌으로서 위험에 빠진 백성들에게 따뜻한 이불이 되어주지 않았나 싶다.

과거에 우리나라 바다를 지킨 사람은 이순신 장군이였다면 21세기 현재 바다를 지켜야 하는 사람은 우리들이다.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 땅인 독도를 계속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교과서도 바꿨다. 그리고 일본은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국제적으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홍보를 하고 있다. 백성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한 마음으로 노를 저었듯이 우리도 한 마음으로 독도를 지키다면 비로소 이순신 장군을 볼 면목이 생길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활과 칼을 이용해 바다를 지켰다면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으로 우리나라 바다를 평화롭게 지키는 영웅들이 되었으면 좋겠다.